

‘수뢰 혐의’ 국대 손준호... “中 공안 구속수사로 전환”

에이전트도 형사구류...유·무죄 법정서 가려질 듯 “검찰원, 형사 구류 17일로 만료되자 구속 비준”

중국 공안이 형사구류(임시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사진) 선수에 대해 구속(제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팝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의 경우 2021년 8월 정식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인 작년 6월 첫 재판을 받았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던 여행객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

원) 수뢰 혐의로 라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구속’을 의미한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조사 기한은 전날인 지난 17일까지였다.

그가 이때까지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으면서 구속 수사 전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

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할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부정 태풍 속에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점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라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5일 손준호를 대표팀에 발탁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며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고 응원했다.

축구협회도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급파해 현장 상황 파악과 손준호 지원에 나섰으나, 이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난 5일 귀국했다. /연합뉴스

‘죽음의 난민보트’서 생존한 18살...가족과 재회

그리스, 전복 사고 추가 생존자 ‘난망’

“내가 살아 돌아오니...신께 감사드립니다.”

네덜란드를 거쳐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의 습터에 당도한 시리아인 파디는 동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그를 끌어안고 머리에 입맞춤을 퍼부었다.



그리스 이주인 보트 전복 사고에서 생존한 시리아 남성(왼쪽)이 칼라마타 항구에서 경찰 사이로 자신의 형과 재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8살 모하마드는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14일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해안으로부터 서남쪽 75km 바다에서 이주인 수백명이 탑승한 고기잡이 보트가 강풍에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이들 가운데 78명이 주검으로 발견됐고, 생환한 것은 아직 104명 뿐이다. 정확한 탑승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희생자가 최대 5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의 국적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등으로 다양하다.

혹시라도 피난처가 살아 돌아올까 실낱같은 기대를 품은 이들 수십명이 이곳 보호소에 모여들어 추가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마다 경찰이 세워둔 창살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가족의 얼굴

이 담긴 스마트폰 사진을 꺼내보이며 생사를 확인하기에 바빴다.

파키스탄 출신의 아딜 후세인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형제는 그리스에서 십수년간 불법체류하다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서의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향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내 형제의 친구는 여기에 있다”며 “내 형제는 어디에 있나”라고 울부짖었다.

그리스 시리아인협회의 안와르 바크리 사무총장은 “이것은 비극”이라며 “어린이들부터 16살, 20살, 25살까지 실종된 이들을 찾는 부모들이 내게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바크리 사무총장은 “아직 생존자 중 여자는 없다”며 “모든 여자가 죽고, 가라앉았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익사한 것”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시시각각 구조의 ‘물든 타임’이 지나면서 희망의 불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

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살아 돌아온 탑승자들은 배에 타기 위해 리비아 브로커에게 한 사람당 4천 500달러(약 576만원)를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가난을 못이겨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보트피플’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중부 지중해에서 난민 44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최다 수치다. /연합뉴스

독일서 출토된 3천년전 청동검 ‘반짝반짝’

독일에서 3천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반짝임을 잃지 않은 상태로 청동검(사신)이 발굴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역사유적보존실은 이 청동검이 지난주 뉘른베르크와 슈투트가르트 사이에 있는 남부 도시 뇌르틀링겐에서 출토됐으며 청동기 시대 중반인 기원전 14세기 말 유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바이에른주 역사유적보존실은 “날 앞부분에 무게중심이 있는데 주로 무엇을 베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이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무기였다는 의미다. 날부터 팔각형 손잡이까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흔치 않다고 역사유적보



존실은 전했다.

놀라울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은 이 청동검은 남성, 여성, 소년 등 세 사람이 함께 묻힌 무덤에서 나왔다. 여러 청동 부장품과 함께 차례대로 묻힌 이들 세 사람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관에서 푹푹...”장례도중 희생한 에콰도르 70대

“남미 에콰도르에서 70대 여성이 사망판정 후 장례 도중 깨어났다” 1주일 만에 “다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A.P 통신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콰도르 보건부에 따르면 76세의 은퇴한 간호사 벨라 몬토야는 지난 9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에콰도르 남서부 바바오요에 있는 병원에 실려 왔고,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자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다.

아들인 힐베르토 바르베라 몬토야는 어머니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몇시간

뒤 의사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사망확인서 등 서류를 건넸다고 말했다.

빈소로 옮겨진 벨라 몬토야는 관속에 5시간 동안 안치돼 있었는데, 갑자기 관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와 친지들과 관뚜껑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고 힐베르토는 전했다.

벨라 몬토야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1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고 힐베르토가 전했다. /연합뉴스



www.slhealth.co.kr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 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욕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롤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움직임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워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